

## 3주차 유동하는 공포 “장산범”

인터넷 괴담·웹툰 “장산범”과 영화 <장산범>(2017)



이미지 출처: [공 개봉하는 영화 "장산범" 실제 목격 괴담 모음 - 인스티즈\(Instiz\) 인터넷포털](#)

강의 이소윤

# 구비문학

- 구(口):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옴



- 비(碑):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오래도록.



=>구전의 성격과 문헌의 성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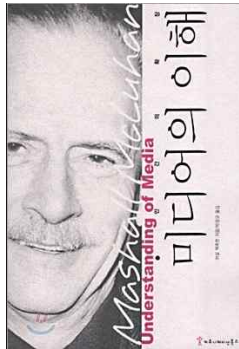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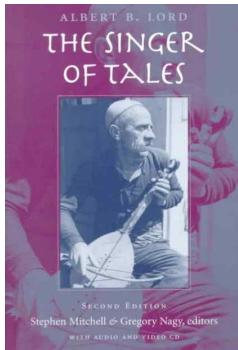
# 구술성과 기술성에 관한 이론

## 1) 대분할 이론

-기술 중심주의자

-로드Albert Lord: 구술성의 사회에서  
기술성의 사회로의 이행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

-맥루한Marshall McLuhan:  
구술성에서 기술성 사이의 "끊김 현상"  
자신의 정체성뿐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까지 수정해야 함



# 구술성과 기술성에 관한 이론

## 1) 대분할 이론

-구술 중심주의자

-옹Walter J. Ong:

구술성이 지닌 심리역학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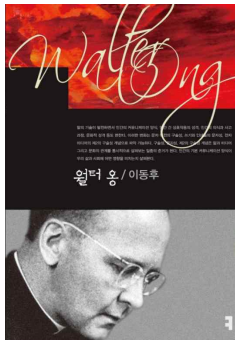
“부가적” “축적적” “상황적”

“잉여적” “참여적” “논쟁적”

인간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결정적 요인

원시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

인간의 삶에 더 밀착되어 있는 것은 “구술성”



# 구술성과 기술성에 관한 이론

## 2) 지속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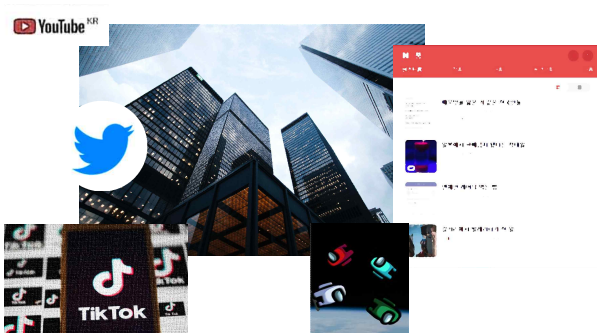
- 피네간 Ruth Finnegan
- 구술성과 기술성의 차이는 인정
- 구술성⇒기술성의 단선적 진화론 거부
- 기술성의 기능: 심리적, 언어적 X  
사회적, 제도적 O



구술성

기술성

# 뉴미디어 시대의 구비문학



- 구술성과 기술성을 넘어
- 구비문학의 '설화'
- 미디어와 뉴미디어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 당신에게도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 제404화 - 미확인 생명체

2009/05/03 00:00 • 심화괴담

### 1.

제가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봐서 올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해운대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적이 있습니다.

산을 싫어하진 않아서 계속 따라 갔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산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이었을 겁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

프로필

방명록



전체 1956

공시시험 300

도시괴담 483

실화괴담 589

두고괴담 17

공포영화 195

이토준지 백과 23

공포영화 260

기타공포 76

전체 33045023

오늘 4487

이제 6791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 2.

36살이나 먹은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라 이야기해봅니다.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교문에서 바라보면 산자락 속에 학교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산 중턱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었습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1.

제가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봐서 올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해운대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적이 있습니다.

초여름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마고당을 지날때쯤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를 달려와서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못 보셨다고 합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 산을 오르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뒤에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한 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다가오는데,  
불현 듯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싹했습니다.

가는 길이 외길이라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순간 그 사람이 네 발로 달립니다.

그리고는 저를 덮치는 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으아아악!

두 눈을 찔끔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 서 가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사립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털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목구비가 없는 것 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저 이외에는  
장산에서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투고] 시크한 바다남자님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2.

36살이나 먹은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라 이야기해봅니다.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4학년 2학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개비가 내려서 쌀쌀하게 느껴지던 아침 조회시간, 준비물을 챙겨보다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철가루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시계를 보니 수업시작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서 있어서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매점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 갔습니다.

철가루를 손에 쥐었을 땐 이미 수업시작 종이 울렸고, 종소리에 놀라 뒤돌아서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빨리 산을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 쪽에는 안개인지 비구름인지가 서려있는 흐린 시야 속에 그 흰 물체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수업 시작 되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몸이 움직여 지지 않았습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멍하니 쳐다보는데, 잘 보니 그 흰 물체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습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본 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색이었는데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흰 물체가 네 발로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세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발은 운동장에 잠기는 듯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날마다 그 곳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다 절 얼어붙게 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본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분은 심지어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저랑 연령도 비슷한 걸 보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잠밤기에도 올려봅니다.  
혹시 '그것' 을 보신 분이 계시나 해서 말입니다…….

[투고] 飛天女님

[추신] 비슷한 시레라고 생각되어 묶어서 올립니다.

# 스레드-미확인 생명체 제보 접수 및 토론

1 이름 : 레스주1 : 2010/09/26(일) 21:20:26.77 ID: GIH+3WxPuEs

이 스레드는 '미확인 생명체 제보 접수 및 토론'이라는 스레드의 파생스레드임을 명확히 한다. 스레주는 원 스레드의 스레주이고, 파생스레드의 생성자는 레스주1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먼저 미확인 생명체 스레드에서 설명된 '범'의 특징과 목격담을 나열하겠다.

32 이름 : 이름없음 : 2010/09/26(일) 21:32:45.99 ID: K+LusPnBe+U

>>30 저기 스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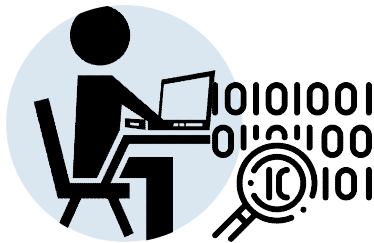
나 경북 스레더인데 경주의 산골에서

'흰색 털같은데 약간 원숭이뻬에 4발로 걷고 덩치는 약간 큰 개만한데 얼굴쪽이 뭉그러져 있는 듯한 느낌'의 괴생물체 본적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냐?



# 스레의 형식과 '정동'

- 초 단위까지 나타내는 입력 시간, 매우 다른 종류의 "정동"을 촉발함
- 감정/정서/정동
- 컴퓨터 모니터 화면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현재
- 화면 속에서 문자로 시각화되는 또다른 현재
- 실시간 대화, 대면성의 실현 가능성



# 장산범 앱과 네이버 웹툰 <장산범>

[앱/무료] 장산범 - 한국의 (UMA)미확인생명체

<https://www.androidpub.com/1920365>  엔터

이름 : 장산범(와호)  
분류 : 엔터테인먼트  
가격 : 무료  
언어 : 한국어만 지원  
제작자 : Godwish

지원버전 : 2.1

스토어 : 안드로이드 마켓

상세정보 :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실제 웹사이트 등 상세 정보

장산범은 무엇인가?

장산범의 모습은?

장산범 관련 글

장산범 제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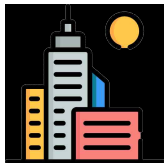


# 공포의 감각

- 공포를 자아내는 괴담류의 이야기⇒목격담의 형태

1)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 '그것'

2) 도시인에게는 이질적인 공간, '산'



# 지그문트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이다.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

# '산'으로 돌아가는 장산범

- 도시 인근에 위치한 '산'
  - 기존의 분류체계로 분류될 수 없고 또 새로운 분류체계로 편입될 수 없음
  - 분류체계 밖에 존재하는 '예외'로서 계속해서 도시 주변부에 존재
  -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공권력에 의해 그 존재가 인식⇒법에 포함
  -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법으로부터 배제
- ∴도시의 분류체계로 파악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



# 파출소 소장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파출소로 들어가서 방금 무슨 소리 못들었냐고 하니까, 순경은 모른다고만 하고, 소장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냥 노루소리라고 하대.

근데 내가 들어봐서 안다고, 저거 노루소리 아니라고 하니까 소장이 눈치를 보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도 노루가 아닌 것쯤은 안다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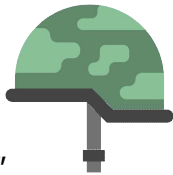
# 군대에서 장산범을 본 이야기

그래서 다음날 저희 부대 제일 연장자이신 행정보급관님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행보관님은 인상이 굳으시더니 잠시 저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누가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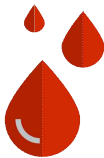
“저하고 행보관님밖에 모릅니다.”

“어제 니가 본 것은 범이라고 사람 잡아 먹는 짐승이다.”



# 괴물 장산범

- 괴물: 억압된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남긴 자취
-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함으로써 공포를 회피
-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테러와 재해의 참상
- 개인의 공포는 생활정치의 차원으로 격하
- 이제 더 이상 테러와 재해의 결과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 텍스트 바깥-‘장산범’으로 규정하려는 노력

이 스레에서 찾고 있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범’이라고 하는 건 경남지역에 내려오는 구전과 장산의 옛이름인 범산에서 따와서 부르고 있는 거야. 명칭없이 부르기는 힘들잖아.

더불어 옛날에는 범이 꼭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범이나 기타 고양이과 대형육식 동물로 추정되는 것들을 가리킬때 동등하게 쓰였기에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옛날 기록의 ‘범’은 반드시 호랑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범’은 일단 거의 경상도지방 한정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에 관한 이야기도 그지역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범’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타지역의 설화와 관련이 없는 녀석일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설을 붙일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

# 텍스트 내부와 외부의 모순적인 길항 작용

텍스트 외부: '범'은 '범'이 아니다!

텍스트 내부

장산범의 규정 불가능성 강조

# 영화 <장산범>(2017)

- 목소리의 모방이 주요한 모티프
-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딸의 목소리를,  
나중에는 아들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희연의 마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옴



# 영화 <장산범>(2017)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 인터넷 괴담 및 웹툰의 공포 요소:
- 영화의 공포 요소:
- 영화 속 목소리 모방의 의미:

# 영화 <장산범>(2017)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 거울: 영화에서 '장산범'을 형상화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소재.
-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거울세포
- 거울은 '모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메타포
- 장산범은 목소리 흉내뿐 아니라 거울의 반사를 통해 청각과 시각의 양 측면에서 상대방을 모방
- 눈이 보이지 않는 민호. 장산범을 볼 수 없었던 상태로 인해 오히려 최후에 살아남음.
- 자신의 감각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참고문헌

나수호,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초기 탐구에 대한 소고」, 『구비문학연구』38, 한국구비문학회, 2014.

심우장, 「통신문학의 구술성에 관하여 : 통신유머를 중심으로」, 이의도 외,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0.

이소윤, 「뉴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도시괴담 장산범 연구」, 『구비문학연구』48, 한국구비문학회, 2018.